# Side Project 1 프로젝트 기획안

| 제목 | Pink + White | | |
|---|---|---|---|
| 장르 | MV | 예상 러닝타임 | 10분 |
| 제작가일정 | *pre-production : 8月~9月<br>*production : 10月 3주차 (가일정)<br>*post-production : 10月 4,5주차 (가일정) | | |
| 주제적 배경 | **1. 최대 안전의 시대와 무조건적 경계의 폐해**<br><br>안전을 이유로 어떤 것이든 용인되는 흐름<br>도처의 CCTV로서 대변되는 안전 갈망의 세대<br>**무조건적 위험/낯섬의 배제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위험을 낳는다.**<br><br>-> 오히려 '경계선의 위험'을 더 배제할 필요가 있다.<br><br>안전욕구 (Safety First)<br>: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나의 인간종의, 나의 국가의, 나의 공동체의, '나'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믿음이 공유된다.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24/7 침해하면서 우리를 (동시에 특정한 존재들을 더욱)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CCTV는 우리의 믿음직한 기계이며 질병인으로부터 비질병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질병인의 결제내역, 위치정보를 모두 뒤져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보고하기를 명한다.<br>: 안전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나와 나의 주변으로부터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배제해가는 것이 내가 안전한 채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안전은 안전할 수 없다. 안전은 위험을 알아보거나 속단하거나 벌하거나 고립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안전은 배제와 대상화와 분리와 혐오의 성질을 자연히 불러일으킨다.<br>: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책임없는 범죄가 존재하는가? 범죄를 범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취급하는 방식은 누군가를, 어떤 동네를, 특수한 공동체를 위험 요소로 호명하면서 그것들과 우리의 거리를 상정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안전해"를 달성하는 듯 | | |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역효과를 낸다. 배제로 작동되는 안전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안전하고자 위험과 나를 배제할 수록 그 경계는 영원히 흔들리며 흐려지다가 선명해짐을 반복하다가 재배치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을 달성하지 못한다.
: 안전욕구가 가닿아야 할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그곳은 안전과 위험이 고체로서 맞닿아 있는 경계가 아니라 기체로서 마구 퍼지고 교란하고 섞이고 흐르는 공간일테다. 안전 안에 위험이, 위험 안에 안전이 언제나 항상 흐르고 있다는 감각, 그 누구도 본질적으로 배제할, 대상화할, 분리할, 혐오할 존재일 수는 없다는 감각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안전공간일 것이다. 나와 다른 존재와 쉼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들에게 안전과 위험은 영원히 그 정체를 알 수 없이 내쉬고 내뿜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지의 감각이어야만 한다.

2. 현상의 구제

카프카의 소설 <굴>은 안 / 밖의 구분에 대한 주제성을 담고 있다. 화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 만의 공간 안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을 건설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나 밖을 배제하는 장치를 발전시킬수록 되려 불안은 커져가며, 강박과 편집만이 점차 팽창한다. 화자가 느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다만 밖(낯섬)의 배제와 안전에 대한 집착만이 그 위협을 디자인한다.

모든 것은 흐른다(헤라클레이토스). 고정불변한 것은 역설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헤라클레이토스). 그러나 인간은 고정불변이 주는 안락함에 숨고자 하며, <굴>의 화자처럼 오로지 배제함으로써 안전을 고정하려든다.

경계짓는 것이 가져다주는 해답은 없다. 인간은 본디 유한하고 그 실존은 수동적이며, 끝없이 무지하다. 동시에 인간이 몸담은 세계의 존재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물과 불처럼, 대립자로서 역동하며 변화 무쌍하다. 삶의 심원한 본질을 불변하는 것에서 찾아선 안된다.

우리가 2020년 맞이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연에서 도래한 광증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과학의 한도 내에서는 필연의 산물이다. 우린 방역을 실시했고, 거리두기의 방책을 마련하며 우연 그리고 필연을 유용한 무언가로 바꾸기 위해 애썼다. 현상의 운동을 감내하고, 가능태(아리스토텔레스)로써 존재와 생성 '사이'의 극복을 도모했다.

| | |
|---|---|
| | 현상이 삶을 구성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경계과 배제는 역동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
| **모티프** | *헤라클레이토스의 불<br><br>*크로노스(Chronos) : 예측가능하며, 측정가능하고, 매번 같은 것은 반복. 시계의 시간.<br><br>*아이온(Aion)의 시간 : 크로노스 그 반대편에서 시계를 부수고, 늘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들이닥치는. 변화무쌍하며 언제나 움직이는. 갑작스레 우리를 다스린다. 이를테면 사랑스러운 연애의 시간, 사랑의 돌연한 침입.<br><br>*노래 가사<br><br>Pink + White / Frank Ocean<br><br>[Intro]<br>Yeah, yeah oh<br>Yeah, yeah yeah<br><br>[Verse 1]<br>That's the way everyday goes<br>매일이 그렇게 흘러가<br>Every time we've no control<br>우린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해<br>If the sky is pink and white<br>하늘이 분홍색인지 흰색인지<br>If the ground is black and yellow<br>땅이 검은색인지 노란색인지 말야<br>* 섞여 있는 하늘의 색을 정확히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조절할 수 없는(have no control) 상태.<br>It's the same way you showed me<br>너가 내게 보여준 것과 같아<br>Nod my head, don't close my eyes |

| | |
|---|---|
| | 눈을 감기보단, 고개를 끄덕여 받아들여<br>Halfway on a slow move<br>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br>*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Ocean이 사랑하던 사람은 고갤 끄덕이고,<br>눈을 감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알려줌.<br>It's the same way you showed me<br>너가 내게 가르쳐준 것과 같아<br>If you could fly then you'd feel south<br>만약 너가 날 수 있다면, 남쪽에 있게 될 거야<br>Up north's getting cold soon<br>북쪽은 곧 추워질테니까<br>The way it is, we're on land<br>지금 이대로, 우린 땅위에 있어<br>Still I'm someone to hold true<br>내가 바로 진실된 그 사람이야<br>Keep you cool when it's still alive<br>너를 이 아름다운 인생에서 늘 멋지게 해줄 거야<br>Won't let you down when it's all ruin<br>모든 것이 무너져도 널 놓지 않을 거야<br><br>[Chorus]<br>Just the same way you showed me, showed me<br>너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말야, 보여줬던 것처럼<br>You showed me love<br>넌 내게 사랑을 보여줬어<br>Glory from above<br>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br>Regard my dear<br>당신을 존경해<br>It's all downhill from here<br>이제부터는 편한 길이야<br><br>[Verse 2]<br>In the wake of a hurricane<br>태풍이 지나갔어<br>* New Orleans에 살던 시절, Katrina 라는 허리케인이 덮쳤던 기억에 대해 얘기하고<br>있음.<br>Dark skin of a summer shade<br>여름 그늘 아래에 검은 피부 |

* Dark skin은 Ocean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피부색을 의미하고,
summer는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동네 의미할 수도 있음.
* 그 이후로는 downhill 이었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의 상황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기였음.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됐던 것처럼)
Nosedive in the flood lines
홍수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Tall tower of milk crates
탑처럼 쌓인 우유팩들
It's the same way you showed me
너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Cannonball off the porch side
포치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고
Older kids trying off the roof
나이 많은 애들은 지붕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Just the same way you showed me, You showed
너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말야, 보여줬던 것처럼
If you could die and come back to life
만약 너가 수영장에서 죽었다 살아나
Up for air from the swimming pool
다시 숨을 쉬게 된다면
You'd kneel down to the dry land
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Kiss the Earth that birthed you
널 낳아준 땅에 입맞춤을 하겠지
Gave you tools just to stay alive
너가 살아갈 수 있게 도구를 주었어
And make it out when the sun is ruined
태양이 망가져도 넌 헤쳐 나올 거야
* 이 부분은 "Mother" Earth, 엄마에게의 헌정으로 볼 수 있음.

[Chorus]
That's the same way you showed me, showed me
네가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You showed me love
너는 내게 사랑을 보여줬지
Glory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
Regard my dear

당신을 존경해
It's all downhill from here
이제부터는 편한 길이야

[Outro: Frank Ocean & Beyoncé]
Remember life
삶을 돌이켜봐
Remember how it was
그 땐 어땠는지 기억해봐
* 어른이 된 후의 삶이 힘들어졌기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
Climb trees, Michael Jackson, it all ends here
나무를 올라가, 마이클 잭슨처럼, 여기서 모든게 끝나
* MJ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자기가 나무를 잘 오른다면서 자기가 가장 잘 올라가는 나무를 소개함.
그걸 "Giving Tree"라고 칭하면서. 그리고 그 나무에서 Heal the world같은 곡을 썼음.
Say what up to Matthew, to Shoob
Matthew하고 Shoob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
Say what up to Danny
Danny에게도 물어
Say what up to life immortality
영원한 삶에게도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Bending up my Nikes
나이키 신발을 꺾어 신고
* Bending up은 신발 오래 신으면 신발 앞코에 생기는 구겨진 자국을 의미.
Running out the melpomene, nicotine
melpomene를 달려, 담배를 피우며
* Melpomene Projects라는 공동 주거지인데 frank ocean이 살던 new orleans에 있음. (빈민가)
* Melpomene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극의 뮤즈, Nike는 우승의 뮤즈임.
그래서 bending up the nikes라는 가사에서 "Bending up"이, 여신이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도 함.
그리고 같은 앨범의 곡 nikes에서 썼던 것처럼 삶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함.
Stealing granny cigs (Take it easy)
할머니 담배를 훔쳐 (진정해)
Gimme something sweet
내게 달콤한 것 좀 줘
Bxxxh, I might like immortality

| | |
|---|---|
| | 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아<br>This is life, life immortality<br>이게 인생이지, 불멸의 삶<br>* 끝부분에서 Ocean은 삶에 별 걱정 없던 순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br>그가 젊었을 때의 몇몇 순간들. 이런 순간이 기억 속에 남아서, 이미 지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짐.<br>이 가사는 이전의 verses와 hooks에서의 긴장감을 설명함. 이 사랑은 삶처럼, 결국 끝날 수밖에 없음.<br>그러나 frank ocean의 연인은 그에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고 과거는 "그냥 그게 어땠는지"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줌.<br>그들은 Ocean에게 살아있으면서도 천국 같은 느낌을 줬고, 이걸 영원(immortality)을 느끼는 기분이라고 말함. |

**등장인물, 미장센**

등장 인물 : A, B

A - 편집증과 심한 강박에 시달림. 자신의 공간과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인물
motive : 프란츠 카프카 〈굴〉

B - 인간/동물/미생물 등 사회의 구분 중 그 무엇으로도 정의가 어려우며, A에게 미지의 존재이자 '침입자' 였으나, 이후 오히려 무조건적 위험의 배제와 안전 강박으로부터 A를 구원하며, 경직된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인물.

미장센

1. 방 안 [ 물 컵 안으로 굴절 반사 현상, 잉크가 물에 번지는 형상, 의자에 묶인 또 다른 모습들의 A ]

인서트 [ 시각 실험 장면 , 쫓고 쫓기는 경계가 불분명하게 서로 달리는 장면 ]

2. 꿈 속 [ 모닥불을 경계로 다른 모습의 두 A, A와 B가 책상에서 심볼을 주고 받는 장면
B와 나누는 사랑의 장면 ]

**Plot**

## Side Project 1 〈Pink + White〉 Plot ( Runnigtime 3:34 )

### 1장 - 방 안
[ 감시/보안/안전/위험배제/강박 ]

### 2장 - 꿈 속
[ 통과/결백/진리/경계해제/사랑 ]

### 음악 시작 전 전사
(1.방 안) 장면들 선형적 제시
시각 실험 인서트

### Frank Ocean - Pink + White ( Runnigtime 3:04 )
음악 호흡과 함께 (2.꿈 속) 장면들 교차,
1.방 안 미장센들 인서트